

보도시점

2025. 9. 5.(금) 17:00

배포

2025. 9. 5.(금) 09:00

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 참가자 출입국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

- 오는 10월 회의 참석자 대상 출입국 수속절차, 전용 입국심사대, 안내시설 설치 등 출입국 프로세스 지원방안 점검·논의
- 인천공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지원

기획재정부 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(단장: 윤정인, 이하 ‘추진단’)은 9.5일(금), 10.21~23일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, 참가자 출입국 절차(CIQ* 수속지원 등) 및 동선, 안내시설 설치 계획 등 출입국 프로세스 지원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,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.

* Customs(세관), Immigration(출입국), Quarantine(검역) 등 출입국 필수절차

이날 현장점검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함께 참여하였으며,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시점의 입출국 흐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, 주요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장 전용통로(더블도어*) 구간, 의전·보안 검색 구간, 전용 입국심사대 및 환영 안내시설 설치 위치, 출입증 발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·논의하였다.

* 항공기 탑승구와 대합실을 연결하는 대표단 전용 출입통로

윤정인 단장은 “APEC 재무장관 및 구조개혁장관, 국제기구 등 대표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접하는 경험이 전체 행사는 물론,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에 대한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,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입국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절차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“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출입국 지원 절차를 면밀히 관리하고, 원활한 동선 관리체계 마련 및 안내 시설 설치·운영 등을 적극 협조하겠다”는 뜻을 밝혔다.

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참석자들이 회의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협의·구체화하여 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	책임자	팀 장 박해정 (044-287-2621)
		담당자	사무관 변유호 (yooho9078@korea.kr)